



치킨 프랜차이즈
자사업 강화 등
마케팅 사활
니



Life

에스티팜
신약 CDMO
본격화
L2



100+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장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주최 : metro, metro경제

깊어진 저성장 늪... 확 뜨는 잭팟보다 '확실한 재테크'를

불안한 국제정세 저성장 대비해야
초고령사회, 노후 보장 재테크 필요
주식·부동산·절세 등 전문가 강연

'아보하'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풀이 하자면 '아주 보통의 하루'다. 특별한 일 없이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의미다.

다만 모든 행복에는 유지비가 필요하다.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테크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여성 90.7세, 남성 86.3세를 기록했다. 5년 전 평균수명보다 각각 2.2세, 2.8세 늘었다.

100세 시대에 아보하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한 번에 빵 터지는' 고수익을 기대하고 재테크 하기보다,

소소하더라도 길고 확실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확재(작지만 확실한 재테크)'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령화·저성장에 대비한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12·3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고, 미국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에는 성장률이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는 0.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16~64세) 인구가 줄면서 생산하는 생산력은 낮아지고, 소득도 부진해 소비·투자 비중이 줄어들어 저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가 0.75명인 상황에서 대다수는 본인이 마련한 재테크 방식으로 노후까지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

오는 2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포럼에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전망'을 주제로, 중장기적으로 저성과와 저금리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의 대응책을 강연한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트럼프 정부는 악달러와 저금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한국, 일본의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13:30~14:00
14:00~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14:10~14:15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5~14:50	기조강연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전망
14:50~15:25	강연	염승환 LS증권 이사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 증시전망과 투자전략
15:25~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어보기
16:00~16:35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상무 :은퇴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주식을 분산 투자하라고 설명한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전문가는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어보기'라는 주제로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방향을 살펴보고 유리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상무는 국민

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연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 부동산 자산 재설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급변하는 세계경제 대응방안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이번 기조강연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및 개인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최근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과 맞닥뜨렸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는 종료됐지만, 각국 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의 출범도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40년 경력의 경제분석 전문가이자 서강대 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영익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금융 불균형 해소과정에서의 저성장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환율 전망 ▲한국 경제 전망 및 개인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 유튜브 채널 김영익의 경제스쿨 운영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해나증권 부사장

염승환

LS증권 이사

트럼프2기, 눈여겨볼 주식은?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미국과 한국 주식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무역 적자 ▲부채 ▲제조업 붕괴 등 3가지 문제 회복에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 증시의 매력 떨어지고 한국 주식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 분석이다.

우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주제로 미국의 정책기조와 미국 예외주의의 종료 등이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주식투자전략'에 대해선 ▲한국의 매력 ▲인공지능(AI) 사이클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염승환 이사는 눈여겨볼 종목으로 전기차와 액화천연가스(LNG), 화장품, 식품, 증권 등을 제시한다.

- 온라인 주식 영업, 교육 및 홍보 담당
- KBS, MBC, SBS, YTN 등 고정패널 출연
- POSCO, LG전자, 포항공대, 국회 등 강연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상속세 개편 '절세노트' 공개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이번 포럼에서 상속세 개편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도 안내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개편한다. 상속 분배에 따른 상속세 부담 차가 발생하는 만큼, 최적의 분배 비율을 설계하는 '절세전략'의 수립이 중요해졌다.

호지영 세무사는 이번 포럼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주요 내용 요약 ▲유산취득세 시행 시 영향 및 절세전략 등 상속세 개편 이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할 전망이다.

- 전 대신증권 WM추진부
- 전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
- 전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

연금계좌로 절세·노후준비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은퇴 준비를 위한 재테크'에 대해 소개한다.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하는 연금계좌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은퇴 준비 계획에 대해 강연한다.

165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과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다. 우선 연금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으로 ISA 가입 및 재가입 방법에 대해서 강연한다. 가입과 만기 납입, 재가입 시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 전 한국FP협회 이사
- 건국대 부동산 경영관리 석사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변수 속 실수요자 전략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25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울출박(울통불통·출렁출렁·박스권)'이라는 키워드로 진단하고 금리·정책 등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한다.

박 원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상승장이 아닌 회복기"라며 "타이밍보다 가격에 집중하고 실거주 중심의 관점에서 내집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청약 전략, 갭투자 위험성, 1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 타이밍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단순한 시세차익보다 '행복한 거주'를 위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전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투자권유 자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



▲'부상 복귀' 이정후, 트리플A팀 상대 2루타 작렬...2타수 1안타 /사진 뉴스사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쿠팡플레이로 본다...전 경기 생중계 계약 확정

▲펜싱 남자 플뢰레 이광현, 리마 그랑프리 동메달
▲조코비치, ATP 1000 역대 최다승 달성...마이애미오픈 16강 진출

▲女육상 경기사 트랜스젠더 '신기록'...2등과 무려 10초 차이 우승에 논란
▲"국제스케이팅장 유치 사활" 동두천시, '빙상도시'로 질주